

체질개선 호랑이 “넥센 공포증 없다”



체질개선에 성공한 ‘호랑이 구단’이 안방에서 ‘천적 테스트’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넥센 히어로즈와 시즌 첫 대결을 벌인다. 더 높은 곳을 보고 있는 KIA 입장에서 넥센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김기태 감독에게도 벗어나고 싶은 ‘넥센 포비아’다.

넥센만 만나면 작아지는 KIA였다. 2013년 7승9패로 기운 상대 전적은 4년 연속 열세로 이어졌다. 2014-5시즌 상대 전적은 4승12패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5승11패로 부진했다.

지난해에는 ‘고척 악몽’까지 KIA를 괴롭혔다.

KIA는 지난해 5월6일 고척 첫 원정에서 6-15 대패를 기록했다. 돛구장에 익숙하지 않은 수비진의 실수 연발 속 한기주가 한 이닝 두 개의 만루홈런을 허용하면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리고 양현종의 완투패와 홍건희의 불륜세이브까지 첫 원정은 싹쓸이 3연패로 끝났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고척



KIA, 지난해 5승 11패 등 4년 연속 열세

최형우·안치홍 등 가세...타선 짜임새 더해

오늘 홈서 시즌 첫 격돌...팻 단 첫 승 도전

원정에서도 돌아온 임창용의 불륜 세이브가 나오는 등 KIA는 고척 7연패의 악몽을 겪었다.

올 시즌은 넥센 열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김선빈-안치홍 ‘키스톤 콤비’를 중심으로 센터라인을 강화한 KIA는 타선의 짜임새와 파워까지 더해졌다.

넥센에 유독 강했던 ‘4번 타자’ 최형우(사진)도 믿을 구석이 있다. 최형우는 최근 3년간 넥센전에서 4할이 넘는 타율을 찍었다. 2014시즌 넥센을 상대로 타율 0.404(75타수 23안타) 7홈런 16타점을 기록했고, 2015시즌 성적은 타율 0.452(62타수 28안타) 7홈런 21타점이다. 지난해에도 역시 54타수 25안타로 0.463의 타율을 찍었고, 5개의 홈런으로 15타점을 올렸다.

‘천적 사냥’에 팀의 새 전력이 된 ‘천적’이 나선다. 초반 부진이 길었던 김주찬에게도 반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김주찬은 넥센전에서 많은 기록과 기억을 남겼다.

넥센과의 15경기에서 61타수 24안타로 0.393의 타율을 찍은 김주찬은 가장 많은 7개의 홈런도 터트리면서 17타점을 올렸다. 여기에 지난해 4월15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는 50 3루타 기록과 함께 타이거즈 역사상 첫 사이클링 히트 주인공이 됐다. 8월11일 고척 원정에서는 프로통산 36번째 2100루타를 채웠고, 연타석 홈런까지 터트렸다. 특히 이날 개인 첫 그라운드 홈런까지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 그라운드 포함 연타석 홈런이라는 진기록도 작성했다.

달라진 타선의 힘을 앞세운 KIA는 넥센 열세 만회와 함께 팻 단 ‘승리 투수 만들기’라는 목표에도 도전한다.

‘신입 호랑이’ 팻 단은 앞선 두 번의 등판에서 모두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불행의 난조로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넥센전 첫 경기를 책임지게 될 팻 단을 위해 타선이 화끈한 지원 공세를 펼쳐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시즌 첫 원정 승 도전

K리그 클래식 6R 16일 수원과 격돌

프로축구 광주FC가 수원에서 시즌 첫 원정 승리를 노린다.

광주 FC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1승2무2패(승점5)로 9위에 랭크됐다. 대구 FC와의 홈 개막전을 1-0으로 장식한 뒤 이후 4경기에서 승점이 2무2패에 그쳤다. 포항-서울-제주-울산으로 이어지는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뒤지 않은 경기력을 과시했다고는 하지만 만족할 성적은 아니다.

지난 원정 3연전에서 승점 1점을 더하는 데 그친 광주는 수원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공수 3인방 활약에 수원 원정의 성적이 달라진다. ‘강팀 킬러’ 송승민과 ‘중원 사령관’ 김민혁, ‘광주의 든든한 수문장’ 윤보상이 수원전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선수들이다.

송승민은 강팀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강팀 킬러’다.

클래식 통산 7골 7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송승민은 수원을 상대로는 2골 1도움을 만들었다. 지난 2016년 6월 29일 원정에서 2-0으로 승리를 이끈 좋은 기억이 있다. 아직 시즌 마수결이 붙어 터지지 않고 있는 송승민에게는

좋은 기억을 살릴 기회다.

김민혁도 지난해 수원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김민혁은 수원전에 2골을 터트리면서 1승1무를 이끌었다. 광주는 수원과의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김민혁의 발끝을 주목하고 있다.

‘최후의 보루’ 윤보상도 든든하다.

2년 차 골키퍼 윤보상은 최근 선방쇼를 이어가며 광주의 골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염기훈과 조나탄을 앞세운 수원에 두렵지 않은 이유다.

수원은 올 시즌 4무 1패로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더구나 후반 막판 높은 실점률을 보이면서 ‘수원 타임’이라는 웃지 못할 징크스가 생겼다.

반면 광주는 두 경기 연속 선실점 이후 막판 동점골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부실해지는 수원의 틀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남기일 감독은 “우리는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닌 팀에 더 맞춰야 한다. 그러다 보면 승리는 자연스레 따라올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기야 한다”면서 “최대한 전력을 끌어올려 수원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릿심 좋아진 광주가 끈끈한 저력과 투지로 수원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날두 2골... 100호골

레알? 레알!

12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경기에서 후반 32분 역전골 득점에 성공한 레알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뮌헨에 2-1 승

호날두, UEFA 주관 대회 최초 통산 100호골



독일과 스페인 리그 1위 팀간 자존심을 건 맞대결에서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먼저 웃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13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홈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멀티골 활약을 앞세워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2-1로 이겼다.

이날 대결은 2013-2015년 레알 마드리드를 이긴 뒤 2016년부터 바이에른 뮌헨을 지도하고 있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안첼로티 데비’로도 관심을 끌었다.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비롯한 카림 벤제마-가레스 베일 등 BBC 공격 라인을 앞세웠다.

선제골은 바이에른 뮌헨이 뽑아냈다. 전반 25분 코너킥 찬스에서 비달이 헤딩 슈팅으로 골망을 흔든 것이다. 전반 45분에는 바이에른 뮌헨 프랑크 리베리의 문전 슈팅이 수비수 팔에 맞으면서 페널티킥

을 얻어냈다. 그러나 카커로 나선 비달의 오른발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2분 만에 호날두가 동점골을 넣었다. 호날두는 오른쪽 측면에서 다니엘 카르바할이 올린 공을 문전에서 오른발 안쪽에 갖다 대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16분 바이에른 뮌헨 하비 마르티네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승부의 추는 급격히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었다. 호날두는 후반 32분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공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뽑아냈다.

호날두는 이날 득점으로 이 대회 96, 97호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94골·바르셀로나)와의 격차를 벌렸다. 호날두는 또 UEFA 슈퍼컵 2골 등을 합해 UEFA 주관 대회에서 최초로 통산 100호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전날 ‘버스 폭발’ 사건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열린 도르트문트(독일)와 AS모나코(프랑스)의 경기에서는 AS모나코가 3-2로 승리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는 레스터시티(잉글랜드)와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손흥민, 2년차 징크스가 뭐예요

EPL 두번째 시즌, 2선수 최다골 등 상승장구

토트넘 손흥민이 ‘2년 차 징크스’를 완전히 극복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시즌인 2016-2017시즌에서 아시아 선수 최다 골, 첫 두 자릿수 득점 등 상승장구하며 리그 톱클래스급 선수로 발돋움했다.

손흥민은 현재 리그 11골로 프리미어리그 최다득점 공동 12위를 달리고 있다. 아울러 축구협회(FA)컵 6골,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골 등 총 18골을 터뜨렸다.

영국 매체 풋볼 위스퍼는 13일 올 시즌 역경을 이겨낸 손흥민의 스토리를 전하면서 손흥민의 존재로 토트넘의 팀 성적이 크게 오를 수 있었다고 조명했다.

이 매체는 “올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을 이적시장에 내놓고 다각도로 경주의 수를 계산했다”고 전했다.

이어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부상과 새로운 전력 빈센트 안선의 부진으로 공격적 구성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걱정거리였던 손흥민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2016 리우올림픽에서의 악몽과 한국 축구대표팀의 자출, 챔피언스리그를 동시에 치르면서 갖게 된 체력 저하 등 갖가지 악재를 딛고 2년 차 징크스를 극복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손흥민은 15일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와의 홈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손흥민이 1골을 더 넣으면 차범근의 한국 선수 유럽 무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19골)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분위기는 좋다. 그는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고 있다. FA컵을 포함한 최근 5경기에서는 무려 7골을 뽑아냈다.

/연합뉴스



수창초 춘계 초등야구 우승...내달 광주 대표로 출전

수창초가 2017년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팀이 됐다.

수창초는 최근 광주 분당구장에서 끝난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화정초를 9-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회장배(제 13회 천안흥타령기)를 겸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수창초는 서립초를 14-11로 이기며 첫 승을 거뒀다. 둘째 날 부전승으로 올라온 화정초를 17-3으로 제압한 수창초는 3연승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수창초는 이번 우승으로 오는 5월 천안에서 열리는 회장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

회 광주 대표로 자격을 얻었다. 준우승을 차지한 화정초도 광주 대표로 출전 기회를 얻었다.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송진형(수창초) ▲우수투수상 : 이민재(수창초) ▲타격상 : 김인우(10타수9안타 0.900·수창초) ▲최다도루상 : 서영준(5개·화정초) ▲최다타점 : 김인우(9타점·수창초) ▲감독상 : 박민재(화정초) ▲MVP상 : 이주현(화정초) ▲감독상 : 류창희(수창초) ▲지도상 : 전경용(야구부장·수창초)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